

2015 지방직 9급 A형[국어]

배미진 교수
일비스고시학원
www.baemijin.com

영역	2015년도		
	문항 수	출제 영역	
문법	2	맞춤법	표기 ('부서지다'와 비표준어 '부쉬지다') 문장부호 (대괄호의 쓰임)
	1	품사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1	용언의 활용	
	1	말·문장	중의적 표현
		다듬기	조사의 쓰임
	1	언어 예절	
합계	7		
한자	1	한자어 (쓰임)	
	2	한자성어 (의미)	
합계	3		
어휘	1	고유어 (의미)	
	1	속담 (의미)	
합계	2		
독해	1	내용 일치 불일치	
	1	글의 서술 방식	
	1	글의 핵심 파악	
	1	글의 전개 순서	
합계	4		
문학	3	고전문학	인물의 성격 파악 (박지원의 양반전)
			인물의 제시 방법 (심청가)
			인물의 정서 파악 (채봉감별곡)
	1	현대문학	작품 내용 파악 (황석영의 객지)
합계	4		

1. 나머지 셋과 의미가 다른 사자성어는?

- ① 갑남을녀(甲男乙女)
- ② 초동급부(樵童汲婦)
- ③ 장삼이사(張三李四)
- ④ 부창부수(夫唱婦隨)

정답 ④

★정답풀이 <2015. 6월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23회 16번 ④번 갑남을녀(甲男乙女), 17회 3번 장삼이사(張三李四)>

‘갑남을녀, 장삼이사, 초동급부’는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고, ‘부창부수’는 부부 사이의 도리를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나머지 셋과 의미가 다른 것은 ‘부창부수’이다.

■ 부창부수(夫唱婦隨):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름. 또는 부부 사이의 그런 도리.

★오답풀이

- ① ■ 갑남을녀(甲男乙女): 갑이란 남자와 을이란 여자라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
- ② ■ 초동급부(樵童汲婦): 땀나물을 하는 아이와 물을 길는 아낙네라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을 이르는 말.
- ③ ■ 장삼이사(張三李四): '1' 장씨(張氏)의 셋째 아들과 이씨(李氏)의 넷째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이나 신분이 특별하지 아니한 평범한 사람. '2' 『탈교』 사람에게 성리(性理)가 있는 줄은 아나, 그 모양이나 이름을 지어 말할 수 없음.
- 참고 ■ 필부필부(匹夫匹婦): 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사내와 여자라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

<2015 9급 모의고사 23회 16번 ④번 갑남을녀(甲男乙女)>

한자성어의 의미가 같지 않은 것은?

- | | |
|--------------|--------------|
| ① 泉石膏肓, 煙霞癖疾 | ② 昏定晨省, 斑衣之戲 |
| ③ 朝令暮改, 朝三暮四 | ④ 甲男乙女, 匹夫匹婦 |

★정답풀이

- ③ '조령모개'와 같은 뜻의 한자성어는 '조삼모사'가 아니라 '조변석개'이다.
- 조령모개(朝令暮改): 아침에 명령을 내렸다가 저녁에 다시 고친다는 뜻으로, 법령을 자주 고쳐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움.
= 조변석개(朝變夕改),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
- 조변석개(朝變夕改): 아침저녁으로 뜯어고친다는 뜻으로,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일관성이 없이 자주 고침.
- 구별
- 조삼모사(朝三暮四):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
중국 송나라의 저공의 고사로, 먹이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원숭이들이 적다고 화를 내더니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좋아하였다는 데서 유래함.

★오답풀이

- ① ■ 천석고황(泉石膏肓):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벽(性癖). '성벽(性癖)'은 굳어진 성질이나 버릇을 뜻함.
= 연하고질(煙霞癖疾), 연하지벽(煙霞之癖)
- ② ■ 혼정신성(昏定晨省):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는 뜻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을 이르는 말.
■ 반의지희(斑衣之戲): 늙어서 효도함을 이르는 말.
중국 초나라의 노래자가 일흔 살에 늙은 부모님을 위로하려고 색동저고리를 입고 어린이처럼 기어 다녀 보였다는 데서 유래함.
- ④ ■ 갑남을녀(甲男乙女): 갑이란 남자와 을이란 여자라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
■ 필부필부(匹夫匹婦): 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사내와 여자라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
- 참고 ■ 장삼이사(張三李四): 장씨(張氏)의 셋째 아들과 이씨(李氏)의 넷째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이나 신분이 특별하지 아니한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
- 참고 ■ 초동급부(樵童汲婦): 땀나물을 하는 아이와 물을 길는 아낙네라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

2. 다음 내용에 부합하는 사자성어는?

다양한 의견을 지닌 사회의 주체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도 개개인의 의견을 굽혀 아합하지 않는 열린 토론의 장을 만들자.

- ① 동기상구(同氣相求)
- ② 화이부동(和而不同)

- ③ 동성이숙(同聲異俗)
- ④ 오월동주(吳越同舟)

정답 ②

★정답풀이 <2015. 3월 모의고사 13회 10번 화이부동(和而不同), 17회 20번 오월동주(吳越同舟)>

‘서로 어우러지면서도 (그러나) 개개인의 의견을 굽혀 안합하지 않는’-‘야합(野合)’은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리는 것을 뜻함
 ↳ 화(和) ↳ 이(而) ↳ 부동(不同)

■ 화이부동(和而不同): 남과 사이 좋게 지내기는 하나 화합은 하나 무턱대고(잘 헤아려 보지도 않고) 어울리지는 아니함.
 (여기에서 ‘동(同)’은 ‘같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하다’의 뜻으로 쓰임)

■ 함께하다: 서로 어떤 뜻이나 행동 또는 때 따위를 동일하게 가짐. = 같이하다.

★오답풀이

- ① ■ 동기상구(同氣相求): = 동성상응(同聲相應).
- 동성상응(同聲相應): 같은 소리끼리는 서로 응하여 울린다는 뜻으로, 같은 무리끼리 서로 통하고 자연히 모인다는 말.
- ③ ■ 동성이숙(同聲異俗): 사람이 날 때는 다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으나, 자리면서 그 나라의 풍속으로 인해 서로 달라짐을 이룸.
- ④ ■ 오월동주(吳越同舟):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룸.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서로 적대시하는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탔으나 풍랑을 만나서 서로 단합하여야 했다는 데에서 유래함.

<2015년. 3월 모의고사 13회 10번 화이부동(和而不同)>

<보기>의 속담과 유사한 뜻을 지닌 한자성어는?

<보기>

물 퍼린 것도 잘 보면 여러 가지라; 그저 그렇게 보이는 물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다는 뜻으로, 여러 대상이 얼른 보아서는 비슷하게 보여도 자세히 따져 보면 꼭 같은 것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① 유만부동(類萬不同) ② 표리부동(表裏不同)
- ③ 화이부동(和而不同) ④ 대상부동(大相不同)

★정답풀이 ①

■ 유만부동(類萬不同): 「1」 비슷한 것이 많으나 서로 다름. 「2」 정도에 넘침. 또는 분수에 맞지 아니함.

★오답풀이

- ② ■ 표리부동(表裏不同): 마음이 음흉하고 불량하여 겉과 속이 다름.
- ③ ■ 화이부동(和而不同): 남과 사이 좋게 지내기는 하나 무턱대고 어울리지는 아니함.
- ④ ■ 대상부동(大相不同): 조금도 비슷하지 않고 크게 다름.

3. ㉠ ~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리포트 자료를 종류별로 (㉠)해 두어라.
- 재활용할 쓰레기를 제대로 (㉡)해야 한다.
- 그는 언제나 옳고 그른 일을 정확하게 (㉢)할 줄 안다.

㉠ ㉡ ㉢

- ① 分類 分離 區分

- ② 分類 區分 分離
 ③ 分離 區分 分類
 ④ 分離 分類 區分

정답 ①

★정답풀이 <2015년 6월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5회 9번 구분(區分)>

㉠ ■ 분류하다(分類--): 「동사」 【...을 ...으로】 종류에 따라서 가르다.

예 도서를 시대별로 분류하다/시를 작가별로 분류하다/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하다/자료를 세 종류로 분류하다.

■ 분류되다(分類--): 「동사」 【...으로】 종류에 따라서 갈라지다.

예 이 지역은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다.

코끼리는 멸종 위험이 높은 동물로 분류된다/회화는 소재에 따라 정물화, 인물화, 풍경화로 분류될 수 있다.

참고 내용 전개 방식 중, 설명의 방법에 속하는 ‘분류’와 ‘구분’

■ 분류(分類):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묶어 가면서 설명하는 방법

예 우리가 쓰는 글에는 여러 가지 글이 있다. 설명문, 논설문, 보고서, 비평문 등은 논리적인 글에 속하며, 시, 소설, 희곡, 수필 등은 예술적인 글에 속한다. 그리고 주문서, 독촉장, 소개장, 광고문 등은 실용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다.

■ 구분(區分):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가면서 설명하는 방법

예 문학은 운문 문학과 산문 문학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운문 문학은 시가 대표적인 형태이다. 산문 문학에는 소설, 수필, 희곡 등이 있다.

㉡ ■ 분리하다(分離--): 「동사」 서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다.

【...을 (...과)】 예 철수가 뇌관을 (화약과) 분리하다/왕이 정치를 종교와 분리하다(=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다)

【...을 ...으로】 예 00가 관람석을 일반석과 특별석으로 분리하다/00가 장학 편수실을 장학실과 편수국으로 분리하다.

【...에서 ...을】 예 철수가 몸통에서 가죽을 분리하다/영희가 폐트병에서 비닐을 분리하다

00가 수산 생물에서 어업 생물만을 분리하기는 어렵다/

의학자들은 동물의 세포에서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분리해 냈다/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목적어로 온다】

예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우리는 이 둘을 분리하기는 어렵다.

■ 분리되다(分離--): 「동사」서로 나누어 떨어지다.

【...과】 예 정치가 종교와 분리되다.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예 그 가족은 서로 분리되어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으로】 예 전쟁이 끝나자 이 나라는 여러 공화국으로 분리되었다.

【...에서】 예 폐트병에서 분리된 비닐/거제 수용소에서 분리된 반공 포로들

㉢ ■ 구분하다(區分--): 「동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다.

【...을 ...으로】 예 이 좌석은 흡연석으로 구분해 놓았다. 저 좌석은 금연석으로 구분해 놓았다.

【...을 ...과】 예 열차의 좌석을 흡연석과 금연석으로 구분해 놓았다/철수야, 읽을 책을 읽은 책과 구분해 놓겠니?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목적어로 온다】

예 우리는 옳고 그른 일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예 철수는 작가에 따라 이 책들을 구분해 놓아라.

■ 구분되다(區分--): 「동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가 몇 개로 갈리어 나뉜다.

【(...과) ...으로】 예 현대 종교의 내세관은 선과 악에 의한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된다./고등학교는 문과와 이과로 구분되어 있다.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예 기숙사에는 남녀의 방이 구분되어 있다.

구분(區分) - <2015년 6월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5회 9번>

9. 밑줄 친 한자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류 제출 기한(期限)이 다음 달 10일이다.
- ② 교차로의 교통 신호 체계(體系)를 변경하였다.
- ③ 좌석을 흡연석과 금연석으로 구분(區分)해 놓았다.
- ④ 응급실에 가서 상처를 소독하는 처방(處方)을 받았다.

★정답풀이 ④

처방(處方) → 처치(處置)

- 처방(處方) : ①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증상에 따라 약을 짓는 방법. ② 일정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 ③ 『의학』 = 처방서.
- 처치(處置) : ① 일을 감당하여 처리함. ② 처리하여 없애거나 죽여 버림. ③ 상처나 헌데 따위를 치료함.

4.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나이드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숫저울까?
- 숫잡다: 순박하고 진실하다.
- ② 그녀는 그가 떠날까 저어하였다.
- 저어하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다.
- ③ 나는 곰살궂게 이모의 팔다리를 주물렀다.
- 곰살궂다: 일이나 행동이 적당하다.
- ④ 아이들이 놀이방에서 새살거러다.
- 새살거러다: 셀셀 웃으면서 재미있게 자꾸 지껄이다.

정답 ③

저어하다 <2015 일찬국어 기본서 3권 245쪽>

곰살궂다 <2015 일찬국어 기본서 3권, 199쪽>

★정답풀이

- 곰살궂다 : 「형용사」 ① 태도나 성질이 부드럽고 친절하다. ② 꼼꼼하고 자세하다.

참고

- 곰살갑다 : 「형용사」 성질이 보기보다 부드럽고 상냥하다.
- 살갑다 : 「형용사」 ① 마음씨가 부드럽고 상냥하다. ② 닿는 느낌 같은 것이 가볍고 부드럽다. ③ 물건 따위에 정이 들다.
- 곰상스럽다 : 「형용사」 ① 성질이나 행동이 싹싹하고 부드러운 데가 있다. ② 성질이나 행동이 잘고 꼼꼼한 데가 있다.

★오답풀이

- ① ■ 숫잡다: 순박하고 진실하다.

참고 ■ 순박하다(淳朴--/淳樸--/醇朴--):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순수하며 인정이 두텁다.

- ② ■ 저어하다: 「동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다.

【…을】 예 그는 남의 귀를 저어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들 들으란 듯이 큰 목소리로 말했다.

【-기를】 예 그는 집 밖으로 나서기를 저어하는 것 같았다.

【-르까】 예 그녀는 그가 떠날까 저어하며 노심초사했다.

참고 ‘저어하다’의 어원: 절+어+ㅎ+다 → 저히 하다(‘절다’는 ‘두려워하다’의 옛말)

5. 다음과 같은 뜻의 속담은?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진다는 것을 말한다.

- 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 ② 언 발에 오줌 누기
- ③ 여름 불도 쪼다 나면 서운하다.
- ④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정답 ② <2015년 6월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10회 17번 고식지계-동족방뇨>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2015 알찬국어 기본서 3권 368쪽>

언 발에 오줌 누기 <2015 알찬국어 기본서 3권 370쪽>

★정답풀이

‘임시변통’을 뜻하는 속담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등이 있다. ‘임시변통’을 뜻하는 한자성어로는 ‘동족방뇨(凍足放尿), 고식지계(姑息之計), 미봉책(彌縫策), 하석상대(下石上臺)’ 등이 있다.

- 언 발에 오줌 누기: 언 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누어 봤자 효력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함. = 동족방뇨(凍足放尿)

참고 임시방편적 계책을 뜻하는 한자성어

- 동족방뇨(凍足放尿): 언 발에 오줌 누기.
- 고식지계(姑息之計): 우선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피나 방법. 한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임시로 둘러맞추어 처리하거나 이리저리 주선하여 꾸며 내는 계책을 이룸.
- 미봉지책(彌縫之策): 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계책(計策). ≡ 미봉책(彌縫策)
- 하석상대(下石上臺):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뜻으로,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춤을 이르는 말. ≡ 상석하대(上石下臺), 상하탱석(上下撐石)
- 상하탱석(上下撐石):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뜻으로, 몹시 꼬이는 일을 당하여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맞추어서 겨우 유지해 감을 이르는 말.

★오답풀이

- ①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 손해를 크게 볼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마땅치 아니한 것을 없애려고 그저 덤비기만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룸.
= 빈대 미워 집에 불 놓는다
- ③ ■ 여름 불도 쪼다 나면 서운하다:
㉠ 당장에 쓸데없거나 대단치 않게 생각되던 것도 막상 없어진 뒤에는 아쉽게 생각된다는 말.
= 오뉴월 것불도 쪼다 나면 서운하다
㉡ 오랫동안 해 오던 일을 그만두기는 썩 어렵다는 말.
- ④ ■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 밀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이 채워질 수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힘이나 밀친을 들여도 보람 없이 헛된 일이 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룸.

<2015년 6월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10회 17번 고식지계(姑息之計)>

17.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인은 너무도 악다. 전체를 위하여 악은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 자기본위로만 악다. 백년대계를 위하여 영리한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일, 코앞의 일에만 아름아름하는 (㉠)에 현명하다. — 이회승, <딸깍발이>

- ① 고식지계(姑息之計) ② 교언영색(巧言令色) ③ 마이동풍(馬耳東風) ④ 연목구어(緣木求魚)

정답 ①

★정답풀이

■ 고식지계 : 우선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피나 방법. 한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임시로 둘러맞추어 처리하거나 이리저리 주선하여 꾸며 내는 계책. = 涇足放尿(동족방뇨)-언 발에 오줌 누기, 彌縫策(미봉책), 下石上臺(하석상대)

6.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나는 그 일을 시답지 않게 생각한다.
- ② 그에게는 다섯 살배기 딸이 있다.
- ③ 밖에 있던 그가 급세 뛰어왔다.
- ④ 건물이 부쉬진 지 오래되었다.

정답 ④

★정답풀이

부쉬진 (X) → 부서진 (O) <2015. 6월 지방직대비 모의고사 17회 2번 ‘부서지다’>

‘단단한 물체를 여러 조각이 나게 두드려 깨뜨리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인 ‘부수다’의 피동 표현으로는 ‘부서지다’가 ‘단단한 물체가 깨어져 여러 조각이 나다.’라는 뜻으로 등재되어 있다. ‘부수다’의 활용형 ‘부수어(부쉬)(O)’는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둔 것에 반하여, ‘부수어’에 피동의 뜻을 지닌 ‘지다’ 보조용언이 결합된 ‘부수어지다(X)’ 또는 ‘부쉬지다(X)’는 표준어로 선택되지 않았다. 접미사 ‘-뜨리다/트리다’가 결합된 파생동사 ‘부서뜨리다/부서트리다’도 마찬가지이다. ‘부서지다’, ‘부서뜨리다/부서트리다’를 표준어로 등재한 것은 ‘한글맞춤법통일안 1항의 소리 나는 대로 적되’의 예라 할 수 있다.

■ 부서지다: 「1」 단단한 물체가 깨어져 여러 조각이 나다.

예 돌이 부서지다/유리가 부서지다/뼈가 부서지다.

「2」 액체나 빛 따위가 세게 부딪쳐 산산이 흩어지다.

예 햇살이 부서지는 한낮/파도가 바위에 부딪쳐 부서졌다.

「3」 목재 따위를 짜서 만든 물건이 제대로 쓸 수 없게 헐어지거나 깨어지다.

예 문이 부서지다/책상이 부서지다/의자가 부서져서 앉을 수가 없다.

「4」 희망이나 기대 따위가 무너지다.

예 진학하려던 희망이 부서지다.

참고 ■ 부수다: 「1」 단단한 물체를 여러 조각이 나게 두드려 깨뜨리다.

예 유리창을 부수다(부췄다)/사람의 이는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부쉬) 삼키기 좋게 하여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2」 만들어진 물건을 두드리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들다.

예 문을 부수다(부췄다)/세간을 부수다/자물쇠를 부수다/집을 부수다.

★오답풀이

① 시답지√않게 (O)

: ‘시답다’는 ‘마음에 차거나 들어서 만족스럽다’는 뜻의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나 ‘시답지 않다, 시답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부정의 뜻을 나타낼 때 쓴다.

■ -지: 본용언의 어간에 결합하는 보조적 연결어미 ‘-지’는 ‘그 움직임이나 상태를 부정하거나 금지하려 할 때 쓰이는 어미. ‘-지’ 어미 뒤에 ‘않다’, ‘못하다’, ‘말다’ 따위의 보조 용언이 뒤따른다.

■ 시답다: ((‘시답지 않다’, ‘시답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마음에 차거나 들어서 만족스럽다.

예 시답지 못한 생각/시답지 않게 생각하다/별 시답지 않은 소리를 다 한다.

② ‘그 나이를 먹은 아이’라는 뜻의 접미사는 ‘-배기’이므로 ‘다섯√살배기’는 옳은 표기이다.

참고 접미사 ‘-빠기’, ‘-배기’, ‘-박이’

(1) -빠기: 어떤 특성이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뜻하는 말. 예 곱빠기, 얼룩빠기.

(2) -배기: {그 나이를 먹은 아이의 뜻 예 두 살배기, 다섯 살배기.
‘그것이 들어 있거나 차 있음’의 뜻 예 나이배기.
‘그런 물건’의 뜻 예 공짜배기, 대짜배기, 진짜배기.

(3) -박이: 무엇이 박혀 있는 사람이나 짐승 또는 물건이라는 뜻.

예 점박이, 금니박이, 덧니박이, 네눈박이, 차돌박이, 외톨박이.

무엇이 박혀 있는 곳 또는 한곳에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뜻.

예 장승박이, 불박이.

※ ‘바기’라는 접사는 없음.

③ ‘지금 바로’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금세’가 맞다. ‘금세’는 ‘금시에’가 줄어든 말로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된다.

■ 금세: 지금 바로. ‘금시에’가 줄어든 말로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된다.

예 소문이 금세 퍼졌다./약을 먹은 효과가 금세 나타났다.

구별 ■ 금세: 물건의 값 또는 물건값의 비싸고 싼 정도.

<2015. 6월 지방직대비 모의고사 5회 6번 ‘금세’>

다음 중 맞춤법이 맞는 것은?

- ① 인제 채비가 다 되서 모래면 떠날까 해요.
- ② 어찌피 늦었으니 금새 설거지를 마치는 대로 갑시다.
- ③ 개는 서둘거나 망설임 없이 깍듯이 예의를 차렸다.
- ④ 흰칠한 허위대에 널찍한 얼굴의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정답 ③

★정답풀이

‘개’는 ‘그 아이’의 준말, ‘서둘거나’는 ‘서두르거나’의 준말, ‘망설임’은 ‘망설이다’에서 파생된 명사, ‘깍듯이’는 ‘분명하게 예의범절을 갖추는 태도로’란 뜻의 부사로 모두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오답풀이

① ‘인제’는 맞는 표기이지만 ‘되서’는 틀리는 표기이다.

되서 (X) → 되어서 (O) 또는 돼서 (O)

② 어찌피 (X) → 어차피(於此彼) (O)

금새 (X) → 금세 (O)

: ‘지금 바로’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금세’가 아니라 ‘금세’가 맞다.

■ 금세: 지금 바로. ‘금시에’가 줄어든 말로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된다. 예 소문이 금세 퍼졌다./약을 먹은 효과가 금세 나타났다.

구별

■ 금세: 물건의 값 또는 물건 값의 비싸고 싼 정도.

④ 허위대 (X) → 허위대 (O), 널찍한 (X) → 넓적한 (O)

7. 묶음표의 쓰임이 잘못된 것은?

- ① 나는 31 운동(1919) 당시 중학생이었다.
- ② 그녀의 나이(年歲)가 60세일 때 그 일이 터졌다.
- ③ 젊음[희망(希望)의 다른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 ④ 국가의 성립 요소

{ 국토
국민
주권 }

정답 ②

<2015. 3월 모의고사 1회 10번>

★정답풀이

나이(年歲) (X) → 나이[年歲] (O)

🔍 대괄호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는 대괄호를 쓴다.

예 나이[年歲], 낱말[單語], 손발[手足]

구별

🔍 소괄호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는 소괄호를 쓴다.

예 기호(嗜好), 자세(姿勢), 커피(coffee), 에티켓(étiquette)

참고 ■ 묶음표: 문장 부호의 하나. 소괄호(()), 중괄호({ }), 대괄호([])가 있다.

★오답풀이

①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에는 소괄호를 쓰므로 ‘31 운동’ 뒤에 ‘1919년’에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보충적인 내용을 ‘(1919)’로 쓴 것은 알맞게 쓴 것이다.

🔍 소괄호: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쓴다.

예 니체(독일의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2014. 12. 19.(금)

문인회의 대표적인 소재인 사군자(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는 고결한 선비 정신을 상징한다

참고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는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이나 가운뎃점을 쓰는 것도 허용한다.

🔍 마침표: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

예 3.1 운동, 8.15 광복

붙임 이때는 마침표 대신 가운뎃점을 쓸 수 있다.

예 3.1 운동(O)/3.1 운동(O), 8.15 광복(O)/8.15 광복(O)

③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는 소괄호를 쓰며,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는 대괄호를 쓴다.

🔍 대괄호: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필요가 있을 때 바깥쪽의 괄호로 쓴다.

예 어린이날이 새로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쓰라고 하였다.[윤석중 전집(1988), 70쪽 참조]

이번 회의에는 두 명[이혜정(실장), 박철용(과장)]만 빼고 모두 참석했습니다.

④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는 중괄호를 쓴다.

🔍 중괄호: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쓴다.

예 주격 조사 { 이
가 }

영토
 국가의 성립 요소 { 국민 }
 주권

<2015. 3월 모의고사 1회 10번>

10. 한글 맞춤법에 따른 문장부호의 사용이 옳은 것은?

- ① 늦은 밤(夜)에 밤(栗)을 화롯불에 구워 먹었다.
- ②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한 학자가 있다.
- ③ 도대체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 ④ 《서시》는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실린 작품이다.

정답 ②

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몽타주는 두 개 이상의 상관성이 없는 장면을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에이젠슈타인은 몽타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상형문자가 합해져서 회의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빌려 왔다. 그는 두 개의 묘사 가능한 것을 병치하여 시각적으로 묘사 불가능한 것을 재현하려 했다. 가령 사람의 ‘눈’과 ‘물’의 이미지를 충돌시켜 ‘슬픔’의 의미를 드러내며, ‘문’ 그림 옆에 ‘귀’ 그림을 놓아 ‘도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식이다. 의미에 있어서 단일하고, 내용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묘사적인 장면을 연결시켜 지적인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가 구현하려 했던 몽타주의 개념이다.

- ① 몽타주는 상형문자의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법이다.
- ② 몽타주는 묘사 가능한 대상을 병치하여 묘사 불가능한 것을 재현한다.
- ③ ‘눈’과 ‘물’의 이미지가 한 장면에 배치되어 ‘슬픔’이 표현된다.
- ④ ‘문’과 ‘귀’의 이미지가 결합하여 ‘도청’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정답 ①

★정답풀이

- ① 상형문자의 형성 원리를 바탕으로 몽타주 기법을 만들었다. (X)
 - 다음의 문장의 내용을 보면,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임을 알 수 있다.

“에이젠슈타인은 몽타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상형문자가 합해져서 회의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빌려 왔다”

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동 시장은 생산물 시장과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생산물 시장이나 타 생산요소 시장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이 상품의 일부라는 점이다. 생산물 시장에서 일반 재화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완전한 이전이 가능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로지 재화 그 자체의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여 수요·공급 의사를 결정한다. 그러나 노동 시장에서 노동이라는 상품은 공급자 자신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 이상의 인간적 관계를 맺게 되고, 수

요공급에 있어서 봉급, 부가 급여, 직업의 사회적 명예, 근무 환경, 직장의 평판 등 가격 이외의 비경제적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노동 시장은 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요·공급이 유연성 있게 변화하지 않는 동시에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해도 가격의 조절 기능이 즉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 ① 여러 이론을 토대로 노동 시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여러 사례를 근거로 삼아 노동 시장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대비의 방식을 사용하여 노동 시장이 가지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노동 시장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분석하여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③

★정답풀이

- ③ 대비의 방식을 사용하여 노동 시장이 가지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대비(對比)’란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대조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1문장 “노동시장은 ~ 생산물 시장이나 타 생산요소 시장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2문장 <생산물 시장의 특징>

- ㉠ 일반 재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완전한 이전이 가능함.
- ㉡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 결정
 -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음.
 - 재화 그 자체의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여 수요·공급 의사를 결정함.

3문장, 4문장 <노동 시장의 특징>

- ㉠ 노동 상품: 공급자(판매자)와 노동 상품이 분리가 안 됨.
- ㉡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 결정
 - 상대방과 인간적 관계를 맺게 됨.
 - 봉급, 부가 급여, 직업의 사회적 명예, 근무 환경, 직장의 평판 등 가격 이외의 비경제적 요소가 영향을 미침.
- ㉢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공급
 - 유연성 있게 변화하지 않음.
 -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해도 가격의 조절 기능이 즉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오답풀이

- ① 시장과 관련한 여러 이론은 제시 되지 않았으며 노동 시장에 대한 다양한 관점도 소개되지 않았다.
- ② 노동 시장의 특징을 설명했을 뿐, 여러 사례를 근거로 노동 시장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노동 시장과 생산물 시장을 대조하여 설명할 뿐, 노동 시장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1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장은 혼자서 빙글 웃었다. 감독조를 짐짓 3공사장으로 보내길 잘했다고 그는 생각했다. 사실은 그들이 없으면 인부들을 통솔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원하는 대로 모두 수격수격 들어주고 나면 길 잘못 들인 강아지 새끼처럼 또 무엇을 달라고 보챌지 몰라 불안할수록, 더욱 감독조는 필요했다. 그래서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보냈다가 인부들과는 낯선 다른 패들로 교대시킬 뿐이었다. 현재 노임도 올랐고 시간 노동제도 실시하고 있는 척할 수밖에 없지만, 우선 내일의 행사를 위해 숨 좀 돌려보자는 게 그의 속셈이었다. 그 다음엔 주동자들을 먼저 아무도 모르게 경찰에 데려다가 책임을 물어 따끔하게 본때를 보인 후, 여비나 두둑이 주어 구슬리며 탄 지방으로 쫓아 보낼 작정이었다. 그의 손에는 쟁의에 참가했던 인부들의 명단이 저절로 들어와 있는 셈이었다. 그들 불평분자의 절반쯤은 3공사장 인부들과 교대시키고, 나머지는 남겨 두되 각 함비에 빨빨이 흠이지게 배당할 거였다. 점차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둘씩 해고해 나갈 것이었다. 차츰차츰 작업량을 늘리고 작업장을 줄여 가면 남는 인부가 많게 될 테니 열흘도 못 가서 감원할 구실이

생길 거였다. 따라서 인상되었던 노임을 차츰 낮추며 도급을 계속시키면서 인부들이 모르는 사이에 전과 같이 나가면 어항에 물 갈아 넣는 것처럼 인부들은 모두 새 사람으로 비뀔 것이었다. 소장은 이 모든 일들을 열흘 안으로 해치우고 원상 복구를 해 놓을 자신이 있었다. -황석영, 객지 중에서-

- ① 소장은 내일의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려고 한다.
- ② 소장은 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 ③ 소장은 쟁의의 주동자들을 해고할 생각을 갖고 있다.
- ④ 소장은 감독조를 해체하여 상황을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정답 ④

★정답풀이

소장이 원상 복구할 계획이란 것은 감독조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쟁의에 참가한 인부들을 점차 해고해 나가는 것이다. 감독조는 인부들을 통솔하기 위해 보낸 것이다.

★오답풀이

- ① 6문장 ‘우선 내일의 행사를 위해 숨 좀 돌려보자는 게 그의 속셈이었다.’를 통해서 ①의 내용을 알 수 있다.
- ② 마지막 문장의 ‘소장은 이 모든 일들을 열흘 안으로 해치우고 원상 복구를 해 놓을 자신이 있었다.’를 통해서 ②의 내용을 알 수 있다.
- ③ 7문장 ‘그 다음엔 주동자들을 먼저 아무도 모르게 경찰에 데려다가 책임을 물어 따끔하게 본패를 보인 후, 여비나 두 독이 주어 구슬리며 탄 지방으로 쫓아 보낼 작정이었다.’를 통해서 ③의 내용을 알 수 있다.

11. 밑줄 친 용언의 활용이 잘못된 것은?

- ① 그는 허구헌 날 술만 마신다.
- ② 네가 시험에 합격했으니 동네 어른들과 잔치라도 벌어야겠구나.
- ③ 무슨 말을 해도 괜찮으니 내게 서슴지 말고 말해 보아라.
- ④ 담당자의 서투른 일 처리 때문에 창구에서 큰 혼란이 있었다.

정답 ①

용언의 활용 <5월 서울시 및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 6회 4번, 12회 5번, 17회 8번, 18회 15번>

★정답풀이

허구헌 (X) → 허구한 (O) <2015 알찬국어 1권 118, 325쪽 ‘허구하다’>

기본형이 ‘허구하다’이므로 ‘허구한’으로 써야 맞다.

■ 허구하다: (('허구한' 꼴로 쓰여))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

㉠ 허구한 세월/허구한 날 팔자 한탄만 한다./그는 살 궁리는 안 하고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고 다녔다.

★오답풀이

② <2015. 6월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12회 4번 벌이다>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의 뜻으로는 ‘벌이다’를 쓴다.

‘벌어야겠구나’는 ‘벌이어야 하겠구나’의 ‘하’를 빼고 줄인 말이다. ‘벌이어야’의 ‘이어’를 줄여 ‘여’가 되었다.

◆ 벌이(어간)-어야(어미) ∨ 하(어간)-겠(선어말어미)-구나(종결어미)

↳ 벌어야 ∨ 하겠구나

↳ 벌어야겠구나.

(본용언의 활용형 ‘-아야/-어야’ 뒤의 보조용언 ‘하겠-’의 표현 시, ‘하-’의 생략이 가능한데, ‘하-’의 생략 시 앞의 본용언의 활용형 ‘-아야/-어야’ 뒤에 ‘-겠-’을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예 먹어야하겠다. = 먹어야겠다. 봐야하겠어. = 봐야겠어.

- 벌이다: 【…을】「1」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 예 잔치를 벌이다/사업을 벌이다.
「2」놀이판이나 노름판 따위를 차려 놓다. 예 장기판을 벌이다/투전판을 벌이다.
【…에 …을】「3」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다. 예 책상 위에 책을 어지럽게 벌여 두고 공부를 한다.
「4」가게를 차리다. 예 읍내에 음식점을 벌이다
【(…과)…을】「5」전쟁이나 말다툼 따위를 하다. 예 친구와 논쟁을 벌이다
- 벌리다: 【…을】「1」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 예 줄 간격을 벌리다/가랑이를 벌리다/입을 벌리고 하품을 하다.
「2」꺾질 따위를 열어 젖혀서 속의 것을 드러내다. 예 생선의 배를 갈라 벌리다/밤송이를 벌리고 알밤을 꺼냈다.
「3」우물러진 것을 펴지거나 열리게 하다. 예 자루를 벌리다/양팔을 옆으로 벌리다/아이는 두 손을 벌려 과자를 조심스레 받았다.

③ <2015. 6월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4회 3번 ‘서슴다’>, <2015. 3월 모의고사 6회 5번 ‘서슴다’>

‘서슴다’가 표준어이므로, ‘서슴다’의 어간 ‘서슴-’에 어미 ‘-지’를 붙이면, ‘서슴지’가 바른 표기이다.

주의, ‘서슴하다’는 비표준어이므로, ‘서슴하지’를 줄여, ‘서슴치’로 쓰는 것은 바르지 않다.

■ 서슴다: ((흔히 ‘서슴지’ 꼴로 ‘않다’, ‘말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

「1」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망설이다. 예 서슴지 말고 대답해라.

「2」 어떤 행동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망설이다. 예 그 사람은 귀찮은 일에 나서기를 서슴지 않는다.

④ 서투르다 <2015 일천국어 1권 281쪽>

‘서투른’은 ‘서투르다’의 활용형이다. 어간 ‘서투르-’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을 붙인 것으로 바른 표기이다.

‘서투르다’와 ‘서툴다’는 형용사이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이 붙을 수 없는 제약이 있다.

📌 ‘서투르다’와 ‘서툴다’의 활용

	-고	-며	-는	-ㄴ	-어	-었-
서투르다(본말)	서투르고	서투르며	형용사의 제약	서투른	서툴러(‘르’불)	서툴렀다(‘르’불)
서툴다(준말)	서툴고	서툴며	형용사의 제약	서툰	서툴어	서툴었다

<2015. 6월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4회>

3. ㉠~㉣ 중 밑줄 친 표기가 바른 것만을 골라서 짝지은 것은?

- ㉠ 차네, 밤새 생각타 못해 내린 결론이 겨우 이것뿐인가?
㉡ 그가 여비를 섭섭하게 마련해 주었다.
㉢ 옆집의 남편은 집안일도 서슴치 않고 도맡아 해 준다.
㉣ 컴퓨터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 사람들과 정보 교환이 가능해 되었다.
㉤ 내가 집착컨대 철수는 장차 크게 될 아이이다.

- ① ㉠, ㉡
③ ㉢, ㉣, ㉤

- ② ㉡, ㉢, ㉣
④ ㉡, ㉣, ㉤

3. [정답] ④

★정답풀이

㉡ 섭섭하지(=섭섭지) : 안울림소리 뒤의 ‘하’는 통째로 줄여 쓴다. [맞춤법 40항의 붙임 2].

예 익숙하지(=익숙지), 넉넉하지(=넉넉지) : [맞춤법 40항의 붙임 2].

또한 ‘-지 않-’의 준말은 ‘-잖-’이므로 ‘섭섭잖다’가 맞다. [맞춤법 39항]

예 섭섭지 않다(=섭섭잖다), 익숙지 않다(=익숙잖다), 넉넉지 않다(=넉넉잖다)

㉔ 가능하게(=가능케)

: 올림소리 뒤의 ‘하’는 ‘ㅏ’만 줄이고, 뒤의 예사소리 어미와 ‘ㅎ’을 줄여 거센소리로 줄여 쓸 수 있다. [맞춤법 40항 본항]

예 만만하지(=만만치), 심심하지(=심심치) : [맞춤법 40항 본항]

또한 ‘-치 않-’의 준말은 ‘-찮-’이다. [맞춤법 39항]

예 만만치 않다(=만만찮다), 심심치 않다(=심심찮다)

㉕ 안올림소리 뒤의 ‘하’는 통째로 줄이므로 ‘짐작하건대’의 준말은 ‘짐작건대’가 맞다. ㉔ ‘섭섭지’와 같은 조건의 예이다.

주의 ‘못지않다(못잖다)’는 합성어 한 단어이므로 띄어쓰기하지 않아야 한다.

■ 못지않다 : 「형용사」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뒤지지 않다.

예 가수 못지않은 노래 실력/학력은 중졸이지만 실력은 대졸 못지않다.

★오답풀이

㉔ ‘생각하다 못해’의 준말은 ‘생각다 못해’가 맞다. : 안올림소리 뒤의 ‘하’는 통째로 줄여 쓴다.

㉕ ‘서슴다’는 기본형이 ‘하-’가 없는 단어이다.

따라서 어간 ‘서슴-’에 어미 ‘-지’를 붙이면 ‘서슴지’가 된다. ‘서슴치’를 ‘서슴지’로 고쳐야 바른 표현이다.

12.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다.
- ②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는 함께 살기 어렵다.
- ③ 새해에는 으레 새로운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 ④ 몸이 아픈 사람은 교실에 남아 있었다.

정답 ①

다르다 <5월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 12회 10번>

★정답풀이

‘굳다’는 동사와 형용사가 통용되어 쓰이는 단어이나 ‘무른 물질이 단단하게 되다.’의 뜻으로 쓰인 ①의 ‘굳는’은 동사로 쓰였다. ‘다르다, 새롭다, 아프다’는 형용사이다.

참고 관형사형전성어미 ‘-는’이 붙은 ‘굳는’의 형태만 보아도 ‘동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참고 현재시제어미 결합이 되는 것은 동사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형용사이다.

예 비 온 뒤에 땅이 굳다. (‘굳는다’ (O) - 동사)

예 사람들이 서로 성격이 다르다. (‘다르다’ (X) - 형용사)

예 마음이 새롭다. (‘새롭는다’ (X) - 형용사)

예 몸이 아프다. (‘아프다’ (X) - 형용사)

■ 굳다: [1] 「동사」 ㄱ 무른 물질이 단단하게 되다.

예 기름이 굳다/시멘트가 굳다/말가루 반죽을 오래 그냥 두면 딱딱하게 굳는다.

㉒ 근육이나 뼈마디가 뻣뻣하게 되다.

예 허리가 굳다/허가 굳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㉓ 표정이나 태도 따위가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하여지다.

예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뚜지람을 듣자 그의 얼굴은 곧 굳었다.

㉔ 몸에 배어 버릇이 되다.

예 한번 말버릇이 굳어 버리면 여간해서 고치기 어렵다.

㉕ 돈이나 쌀 따위가 헤프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으로 계속 남게 되다.

예 네가 밥 안 먹으면 쌀 굶고 좋지, 뭐/책을 친구가 빌려 주어서 책 살 돈이 곤었다.

【II】「형용사」 「ㄹ」 누르는 자국이 나지 아니할 만큼 단단하다.

예 굳은 땅과 진 땅.

㉒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다.

예 굳은 결심/굳은 약속/철석같이 굳은 결심/굳게 맹세하다/입을 굳게 다물다/

㉓ 재물을 아끼고 지키는 성질이 있다.

예 그는 사람됨이 굳고 인색해서 남에게 함부로 돈을 빌려 주는 법이 없다.

★오답풀이

② '다르다'는 형용사이다.

■ 다르다: 「형용사」 「ㄹ」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예 아들이 아버지와 얼굴이 다르다. ㄱ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다르다.

㉒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다.

예 고장 난 문을 감쪽같이 고치다니 기술자는 역시 달라.

참고 관형사 ‘다른’

■ 다른: 「관형사」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 ㄱ ㉓ ㉒ .

예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지?/다른 생각 말고 공부나 해라./그는 자기 일 밖의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편식하지 말고 다른 것도 먹어라

③ '새롭다'는 형용사이다.

■ 새롭다: 「형용사」 「ㄹ」 지금까지 있는 적이 없다.

예 새로운 소식/새로운 단계/새로운 기술/새로운 각오로 다시 도전하다.

㉒ 전과 달리 생생하고 산뜻하게 느껴지는 맛이 있다.

예 볼수록 새로운 신록의 모습/기억이 새롭다/감회가 새롭다.

㉓ ((일부 시간이나 수량을 나타내는 말을 주어로 하여))매우 절실하게 필요하거나 어렵다.

예 단돈 만 원이 새로운 형편이다.

④ '아프다'는 형용사이다.

■ 아프다: 「형용사」 「ㄹ」 몸의 어느 부분이 다치거나 맞거나 자극을 받아 괴로움을 느끼다.

예 손바닥을 아프게 때리다/칼에 벤 자리가 아프다./매 맞은 자리가 아프다.

㉒ 몸이 병이 나거나 들어 앓는 상태에 있다.

예 몸이 아파서 조퇴를 하였다/사람들은 아파 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

㉓ 오랫동안 어떤 일을 하여 몸의 어떤 부분에 괴로운 느낌을 받는 상태에 있다.

예 책을 오래 보았더니 눈이 아프다.

㉒ ((‘머리’를 뜻하는 말과 함께 쓰여))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나 복잡한 문제로 생각을 하기 어렵거나 괴로운 상태에 있다.

예 머리 아픈 문제/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정말 골머리가 아팠다.

㉓ ((‘마음’을 뜻하는 말과 함께 쓰여)) 슬픔이나 연민이나 쓰라림 따위가 있어 괴로운 상태에 있다.

예 그와 헤어져 가슴이 아프다.

<2015. 6월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12회 10번>

10.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것은?

① 모든 권세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다.

②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③ 여러 나라가 올림픽에 참가했다.

④ 많은 사람이 우리 의견에 동조했다.

정답 ④

★정답풀이 ‘많은’은 형용사 ‘많다’의 활용형이다.(문장 성분은 관형어)

★오답풀이 ‘① 모든, ② 다른, ③ 여러’는 모두 관형사이다.

13. 다음 중 고친 문장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창작 활동과 전시회를 열었다.
→ 그는 창작 활동을 하고 전시회를 열었다.
- ② 그는 천재로 불려졌다.
→ 그는 천재로 불렸다.
- ③ 그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의 손자이다.
→ 그는 마음씨가 좋은 할머니의 손자이다.
- ④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 물을 주었다.

정답 ③

이중 피동 표현 <5월 서울시 및 지방직 동행 모의고사 2회 5번>

중의적 문장 <5월 서울시 및 지방직 동행 모의고사 8회 8번>

조사의 쓰임 ('에게'와 '에'의 쓰임 구별) <5월 서울시 및 지방직 동행 모의고사 8회 1번, 11회 11번>

★정답풀이

'마음씨 좋은'이 할머니를 수식하는 말인지 손자를 수식하는 말인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주격조사 '가'를 넣는다고 해서 중의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 ① '열었다'와 '활동'이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활동을 하고 전시회를 열었다'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 ② '불려다'는 '부르다'의 피동사인데, 또 보조용언 '-어 지다'와 결합하면 이중 피동 표현이 된다. 그러므로 '-어 지다'를 빼고 '불렀다'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 ④ 유정명사에는 '에게'를 무정명사에는 '에'를 쓴다. 그러나 식물에게 감정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나 동물과 같이 소속이나 위치를 나타내거나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므로 식물은 '에'를 쓴다.

■ 예제: 「조사」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1」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를 나타내는 격 조사. 어떤 물건의 소속이나 위치를 나타낸다.

예 철수에게 돈이 많다/영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2」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친구들에게 합격 사실을 알리다/돼지에게 먹이를 준다.

「3」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남에게 놀림을 받다/개에게 물리다.

<2015. 6월 지방직 대비 동행 모의고사 2회 5번 이중 피동 표현>

5. 다음 중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닌 예제는?

- ① 오래전에 잊혀진 일, 문이 닫혀지다
- ② 나뭇가지가 꺾여지다, 집이 내 눈에 보여지다
- ③ 고기가 많이 잡혀졌다, 칠판에 쓰여진 글씨
- ④ 교실에 남겨진 물건, 밝혀진 사실, 알려진 사실

정답 ④

14. 밑줄 친 부분을 고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사업자는 절전형 기기 보급 제도가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여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

를 줄임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 ① 사업자는 → 사업자의 ② 에너지를 → 에너지의
③ 줄임으로써 → 줄임으로서 ④ 발전과 → 발전보다

정답 ②

조사의 쓰임 <3월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 12회 10번>

★정답풀이

‘에너지를’의 ‘를’은 목적격 조사이다.

목적어는 타동사인 서술어와 호응을 하는데, 뒤에 호응되는 서술어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뒤에 ‘이용’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만들어 주는 것이 적절하므로 관용격 조사 ‘의’로 고친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동의한다’의 주어인 ‘사업자’에다가 관형격 조사 ‘의’를 붙인 것은 잘못 고친 것이다. ‘사업자가’가 맞으며, 혹은 보조사 ‘는’을 쓴 ‘사업자는’도 맞다.

③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조사’는 ‘(으)로써’가 맞으므로 고칠 필요가 없다.

‘(으)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 (으)로써: 「조사」 (('ㄷ'을 제외한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 조사.

예 그가 하는 말이라면 쿵으로써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

예 그는 진실해야 한다는 이념으로써 나라를 다스렸다.

㉢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는 격 조사.

예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진 것이 이번으로써 세 번째다.

■ (으)로서: 「조사」 (('ㄷ'을 제외한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

㉠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자식으로서 마땅히 할 일/사람으로서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의장으로서 한바디 하겠습니까.

㉡ (예스러운 표현으로) 어떤 동작이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남쪽으로서 햇빛이 들어온다.

④ ‘보다’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이 문장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원래대로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인 ‘과’를 쓰는 것이 옳다.

■ 과: 「조사」 [1] ㉠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이 책은 내가 갖고 있는 것과 같다./저 학생은 내가 알고 있던 학생과는 옷차림이 다르다.

㉡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놀았다./십 년 만에 형님과 함께 고향에 다녀왔다.

㉢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한 시민이 도둑과 싸워 그 도둑을 잡았다./용기 있는 한 검사가 거대한 폭력 조직과 맞섰다.

[2]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이때 ‘과’는 경우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며, 생략된 자리에는 점표를 찍는다.

예 경숙과 민희는 여고 동창이다./레몬과 귤은 비타민 시(C)가 많다.

■ 보다: 「조사」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내가 너보다 크다./그는 누구보다도 걸음이 빠르다./그는 나보다 두 살 위이다

<2015. 3월 동형 모의고사 12회 10번>

10.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은?

- ① 사회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것을 모두 대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자격증은 취업은 물론이고 기존의 직장에서도 유리하다.
- ③ 몇 년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노력만 기울여도 빛 걱정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 ④ 지금 인류는 핵전쟁의 위협 이외에도 환경오염과 같이 더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

정답 ③

★정답풀이

몇 년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 세상이(주어)-바뀌다(서술어)

농사를 짓는 사람들: 사람들이(주어)-농사를(목적어)-짓다(서술어)

사람들은 조그마한 노력만 기울여도: 사람들은(주어)-조그마한(관형어)-노력을(목적어)-기울이다(서술어)

(사람들은) 빛 걱정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다: 사람들은(주어)-[빛 걱정 없이](부사절)-행복한(관형어)-나날을(목적어)-보내었다(서술어)

★오답풀이

① 사회에 →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대처하다 → 변화하는 것에 대처하다.

대처하다 :【…에】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하다.

‘대처하다’ 앞의 목적어 ‘~을’을 부사어 ‘~에’로 고쳐야 한다.

② 유리하다 :【…에/에게】이롭다. 이익이 있다.

‘대처하다’ 앞에 부사어 ‘~에’를 넣어야 한다.

→ ‘자격증은 취업은 물론이고, 직장에서의 승진에도 유리하다.’

④ ‘환경오염과 같이’를 ‘환경오염과 같은’으로 고쳐야 한다.

→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가 많이 있다.’

15. 다음 중 올바른 우리말 표현은? (윤주)

- ① (초청장 문안에서) 귀하를 이번 행사에 꼭 모시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전화 통화에서) 과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 ③ (직원이 고객에게) 주문하신 상품은 현재 품절입니다.
- ④ (방송에 출연해서) 저희나라가 이번에 우승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덕택입니다.

정답 ②

직장에서의 언어 예절 <2015 알찬국어 1권 498~500쪽>

방송에서의 언어 예절 <3월 국가직 동형 모의고사 10회 8번>, <5월 서울시 및 지방직 동형 모의고사 2회 12번>

★정답풀이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 “지금 안 계십니다.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다.

★오답풀이

① ‘귀하’는 ‘편지글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름 다음에 붙여 쓰는 말’ 또는 ‘듣는 이를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이다. 이번 행사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부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으로 써야 옳다. 특정한 상대방을 높인 ‘귀하’와 ‘많이 참석하다’는 어울리지 않는다.

③ 주체 간접 높임이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성품, 심리, 소유물과 같이 주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데, ‘상품’은 주체 간접 높임 대상이 아니므로 ‘품절입니다’로 써야 한다.

④ 저희나라 (X) → 우리나라 (O)

‘나라’는 낮추어 말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항상 ‘우리나라’로 쓴다.

참고 '우리나라, 우리글, 우리말'은 합성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2015. 6월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2회 12번>

12. 언어 예절에 맞는 것은?

- ① (손자가 할아버지께) 형이 요즘 매일같이 늦어서 부모님께 야단을 들었어요.
- ② (사회자가 방송 녹화 중에) 영화제에 심사위원으로 초대되어 다녀오신 전OO 씨를 모시겠습니다.
- ③ (자신의 장인어른을 이룰 때) 빙장어른은 회사에 가셨습니다.
- ④ (자신의 관형본관(本貫)을 상대방에게 말할 때) 저는 나주(羅州) '나(羅)'가(哥)입니다.

정답 ④

16.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인간이 체험하는 감각이다. 돌이 단단하고 물이 부드럽다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감각이 체계적인 지식으로 발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감각이 주관적이어서 사람과 시기에 따라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철학자들은 감각을 중시하지 않았지만, 존 로크와 같은 경험론자들은 감각의 기능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구체적인 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 ② 마음을 다하면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고,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면 천명을 알게 될 것이다.
- ③ 종 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종을 치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 ④ 세계의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유 의식의 진보이다.

정답 ③

★정답풀이

“정보의 기본적인 원천은 인간이 ‘체험’하는 감각이고, 경험론자들은 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구체적인 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했으므로 종 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즉 시각적 경험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종을 쳤을 때 소리가 난다는 것을 모를 것이라는 ③번이 글의 내용과 가장 가깝다.

17. 다음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양반이라는 말은 선비 족속의 존칭이다.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있었는데, 그는 어질면서도 글 읽기를 좋아하였다.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반드시 그 집에 몸소 나아가서 경의를 표하였다. 그러나 그는 집안이 가난해서 해마다 관가에서 환곡을 빌려 먹다 보니 그 빚이 쌓여서 천 석에 이르렀다. 관찰사가 각 고을을 돌아다니다가 이곳의 환곡 출납을 검열하고는 매우 노하여, “어떤 놈의 양반이 군량을 이렇게 축내었느냐?”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명령을 내려 그 양반을 잡아 가두라고 하였다. 군수는 마음속으로 그 양반이 가난해서 값을 길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두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 양반은 밤낮으로 훌쩍거리며 울었지만 별다른 대책도 생각해 낼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아내가 몰아세우기를, “당신은 한평생 글 읽기를 좋아했지만 관가의 환곡을 갚는 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구려. 양반 양반 하더니 양반은 한 푼 가치도 못 되는구려.”라고 하였다.

—박지원, 양반전 중에서—

- ① 양반은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② 군수는 양반에게 측은지심을 느끼고 있다.

- ③ 관찰사는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④ 아내는 남편에 대해 외경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정답 ④

양반전 <2015 알찬국어 2권 76, 173쪽>

★정답풀이 아내는 “당신은 한평생 글 읽기를 좋아했지만 관가의 환곡을 갚는 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구려. 양반 양반 하더니 양반은 한 톨 가치도 못 되는구려.”라고 양반을 몰아세우고 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의 의미를 가진 ‘외경’은 거리가 멀다.

■ 외경(畏敬):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 경외(敬畏).

예 그는 존경의 대상을 넘어서 외경의 인물로 평가되어 왔다.

★오답풀이

① ‘양반은 밤낮으로 훌쩍거리며 울었지만 별다른 대책도 생각해 낼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아 양반은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구책(自救策):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방책.

예 불황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

② ‘군수는 마음속으로 그 양반이 가난해서 갚을 길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겼지만’을 보면 군수가 양반에게 측은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측은지심(惻隱之心):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의예지(仁義禮智) 가운데 인에서 우러나온다.

예 구걸하는 걸인을 동정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측은지심이다.

③ 관찰사는 군량을 축낸 죄를 물어 처벌하려 했으므로, 공평무사한 일 처리를 하는 이로 볼 수 있다.

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심청은 시각이 급하니 어서 바빠 물에 들라.”

심청이 거동 보소. 두 손을 합장하고 일어나서 하느님 전에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 전에 비나이다. 심청이 죽는 일은 추호라도 싫지 아니하되, 병든 아버 깊은 한을 생전에 풀려 하고 이 죽음을 당하오니 명천(明天)은 감동하사 어두운 아버 눈을 밝게 띄워 주옵소서.”

눈물지며 하는 말이,

“여러 선인네 평안히 가옵시고, 억십만금 이문 남겨 이 물가를 지나거든 나의 혼백 불러내어 물밥이나 주시오.” 하며 안색을 변치 않고 뱃전에 나서 보니 티 없이 푸른 물은 율러령 칼날 뒤둥구리 굵이쳐서 물거품 북적찌데한데, 심청이기가 막혀 뒤로 벌떡 주저앉아 뱃전을 다시 잡고 기절하여 었던 양은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 심청가 중에서—

- ①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서술이 나타나 있다.
 ② 등장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사건의 상황을 보여준다.
 ③ 죽음을 초월한 심청의 면모와 효심이 드러나 있다.
 ④ 대상을 나열하여 장면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④

심청가 <2015 알찬국어 2권 33, 40, 69, 87쪽>

★정답풀이

제시문은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기 전에 비는 장면으로 이 장면 하나만 제시되었을 뿐 다른 장면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④ 대상을 나열하여 장면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가장 적절하지 않다.

19. 다음 글의 내용과 시적 상황이 가장 유사한 것은?

이때는 추구월망간(秋九月望間)이라. 월색이 명량하여 남창에 비치고, 공중에 외기러기 응응한 긴 소리로 짝을 찾아 날아가고, 동산의 송림 사이에 두견이 슬피 울어 불어귀를 화답하니, 무심한 사람도 마음이 상하거든 독수 공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야 오죽할까. 송이가 모든 심사를 저버리고 책상머리에 의지하여 잠깐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눈을 뜨고 보니, 남창에 밝은 달 허리에 가득 하고 쓸쓸한 낙엽송은 심회를 돕는지라, 잊었던 심사가 다시 가슴에 가득해지며 눈물이 무심히 떨어진다. 송이가 남창을 가만히 열고 달빛을 내다보며 위연탄식하는데,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임을 만났더니, 달은 다시 보건마는 임을 어찌 보지 못하는고, 심양강의 탄금녀는 만고문장 백낙천을 달 아래 만날 적에, 설진심중무한사(說盡心中無限事)를 세세히 하였건마는, 나는 어찌 박명하여 명량한 저 달 아래서 부득설진심중사(不得說盡心中事)하니 가련하지 아니할까. 사람은 없어 말하지 못하나, 차라리 심중사를 종이 위에나 그리리라.”

하고, 연상을 내어 먹을 흙 썬 갈고 청황모 무심필을 듬뿍 풀어 백능화주지를 책상에 펼쳐 놓고, 섬섬옥수로 붓대를 곱게 쥐고 탄식하면서 맥맥이 앓았다가, 고개를 돌려 벽공의 높은 달을 두세 번 우러러보더니, 서두에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 다섯 자를 쓰고, 상사가 생각 되고, 생각이 노래 되고, 노래가 글이 되어 붓끝을 따라오니, 붓대가 쉴 새 없이 쓴다.

— 채봉감별곡 중에서—

- ①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 임은 가어이 물을 건너갔네 /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 이제 임이여 어이할꼬
- ② 가위로 싹둑싹둑 옷 마르노라 / 추운 밤 열 손가락 모두 굳었네 / 남 위해 시집갈 옷 항상 짓건만 / 해마다 이내 몸은 홀로 잔다네.
- ③ 필필 나는 저 피꼬리 / 암수 서로 정다운데 / 외로울사 이내 몸은 /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 ④ 비 개인 긴 언덕에 풀빛 짙은데 / 님 보내는 남포에는 서러운 노래 퍼지네 / 대동강 물은 언제나 마를까 /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더하니.

정답 ③

공무도하가 <알찬국어 2권 100쪽>

황조가 <알찬국어 2권 100쪽>

송인 <알찬국어 2권 120쪽>

★정답풀이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임을 만났더니, 달은 다시 보건마는 임을 어찌 보지 못하는고”- 이 부분을 볼 때, 자신의 심회를 황조의 다정한 모습과 대조하여 읊고 있는 황조가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채봉감별곡은 관직을 사고파는 일이 성행하던 조선 말엽의 세태를 반영한 것을 특징으로 하며, 딸을 팔아서까지 벼슬을 하려고 하는 김진사,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도망하였다가 기생이 되는 채봉, 애인을 만나기 위하여 천한 이방이 되는 필성의 얘기를 다룬 애정소설이다.

■ 채봉감별곡(彩鳳感別曲): 조선 시대의 장희 소설. 평양 김 진사의 딸 채봉과 선천 부사의 아들 강필성이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혼인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작가와 연대는 알 수 없다. = 추풍감별곡.

■ 장희소설(章回小說): 내용이 긴 이야기를 여러 회로 나누어 서술한 소설. <수호전>, <삼국지연의>, <서유기> 따위가 있다.

★오답풀이

- ① 고대가요 ‘공무도하가’ - 임과 사별한 슬픔.
- ② 허난설헌의 ‘빈녀음(貧女吟)’ - 가난한 여자의 처지를 읊은 노래.
- ④ 정지상의 ‘송인’ - 대동강에서 이별을 하면서 읊은 노래.

20.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21세기 인류의 운명은 과학 기술 체계에 부여된 힘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기술 공학에 의해 새로운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소박하고 성급한 희망과, 기술이 인간을 대신해서 역사의 주체로 등극하리라는 허무주의적인 전망이 서로 엇갈리는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 기술 공학적 질서의 본질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문화론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나) 그러나 모든 생산 체계가 중앙 집중적인 기업 문화를 포기할 수는 없으며, 기업 문화의 전환은 어디까지나 조직의 자기 보존, 생산의 효율성, 이윤의 극대화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 무엇보다 기업 내부의 문화적 전환을 떠나서 환경이나 자원, 에너지 등의 범사회적인 문제들이 심각해질수록 사람들은 기술 공학의 마술적 힘에 매달리고, 그러한 위기들을 중앙 집중적 권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하는 기술 사회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다) 기술적 질서는 자연은 물론 인간들의 삶의 방식에도 심층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관리 사회로의 이행이나 노동 과정의 자동화 등은 사회 공학적 기술이 정치 부문과 생산에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물론 기술 사회가 반드시 획일화된 관리 사회나 중앙 집권적 기업 문화로만 대표되지는 않는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터 산업이나 초전도체 산업 등 고도 기술 사회의 일부 산업 분야는 중앙 집권적 기업 문화를 지양하고 자율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지니는 유연한 체제를 채택할 것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

(라) 생활 세계의 질서를 좌우하고 경제적 행위의 목적으로 자리 잡은 기술은 더 이상 상품의 부가 가치를 높여 주는 생산 수단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기술의 체계는 이제 여러 연관된 기술들과 기술적 지식들에 의해서 구성된 유기적인 양상물로 기능하는 것이다. 기술은 그 자체의 질서와 역동성을 지니는 체계이며 유사 주체로서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① (가)-(나)-(다)-(라)

② (가)-(나)-(라)-(다)

③ (가)-(다)-(나)-(라)

④ (가)-(라)-(다)-(나)

정답 ③

★정답풀이

(가)에서 ‘기술 공학에 의해 새로운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지만 기술 공학적 질서의 본질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문화론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 다음에는 기술 공학의 사례 및 기술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다)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다)에서 ‘기술 사회의 일부 산업 분야가 중앙 집권적 기업 문화를 지양하고 자율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지니는 유연한 체제를 선택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했지만 (나)가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하여 ‘중앙 집권적 문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으므로 (다)에 이어서 오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라)에서 ‘기술 체계는 여러 연관된 기술과 기술적 지식들에 의해서 구성된 유기적 양상물로 기능한다’고 하며 앞서 내용을 통틀어 정리하고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가)-(다)-(나)-(라) 순서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